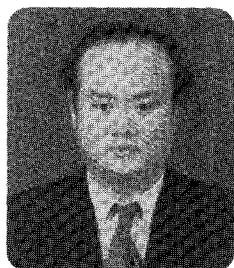


일본 특허청의 PAPER-LESS 계획(2)



김현철 · 변리사

목 차

- I. PAPER LESS 계획도입의 경위
- II. 개발의 역사
- III. PAPER LESS 계획의 향후의 전개
- IV. PAPER LESS 계획 제1단계의 개요
- V. PAPER LESS 계획 제2단계의 개요
- VI. PAPER LESS 계획 제3단계의 개요
- VII. PAPER LESS 계획 제4단계의 개요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지난 및 다음호>

국의 공보등을 3,700만건 축적한 것으로 1984년부터는 광디스크에 축적을 개시하고 있다.

1985년부터는 청외부용의 국내공보 분류의 조회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으며 현재의 조회서비스의 내용은 IPC조회, 문헌번호(출원번호, 공개번호 등) 조회, 국외문헌번호 등까지 확장되어 있다.

또, 외부의 요구에 의한 조회서비스는 1986년부터 순차적으로 확장하여 현재는 특허청(만국 산업재산권 자료관)은 물론 원격지의 출원등도 전국 7개소의 지방통신국에서(札幌, 仙台, 名古屋, 大阪, 廣島, 高松, 福岡)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하다. 이것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정보의 활용이 보다 유효하게 되었다. 즉, 축적정보의 건수는 향후 확충될 예정이다.

V. PAPER-LESS계획 제2단계의 개요

1) F(File forming) Term 검색시스템 (1985년부터 가동)

심사(실체심사)는 출원된 내용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해당되는 발명, 고안인가를 판단하는 업무이다. 이 업무에는 선행기술 문헌으로부터 유사기술의 유무를 검색하는 업무(선행기술

IV. PAPER-LESS계획 제1단계의 개요

- 1) 종합자료 데이터 시스템
- 종합자료 데이터 베이스는 明治이후 일본에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등의 공보 및 주요한 외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 선행기술조사를 선행기술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신속 정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F-Term시스템이다.

특허정보의 검색방법으로서는 크게 나누어 특허정보에 기록되어 있는 언어를 그대로 이용하여 검색하는 방법과 특허정보에 미리 결정된 검색키를 부여하여 두고 그 검색키를 이용하여 특허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이 있다.

영어처럼 문장중 하나의 단어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의 방법으로 기계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특허청에는 이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문장중 하나의 단어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허정보에 미리 결정된 검색키를 부여한 후자의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F-Term은 팽대한 특허정보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기계검색하기 위하여 미리 특허정보에 부여해두는 검색키로서 IPC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기술분야마다 심사관이 작성한 것이다.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기술 관점(예를 들면, 기능, 구조, 형식, 용도, 재료, 목적, 제법 등)으로 심사관이 경험에 기초하여 문헌서치상 유용한 관점을 선택하여 이들을 세부전개한 것이다.

2) D(Design)Term 검색 시스템

(1986년 부터 가동)

의장의 기계검색 시스템은 전자화일화된 자료 중에서 필요한 자료를 검색키로 조합한 논리식에 의하여 검색하여 VDT로 스크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결국 각 자료에 미리 검색을 위하여 정해진 기호를 부여하여 둔 후 그 검색기호에 의하여 검색하는 방식으로 도형의 자동인식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검색키로서는 의장분류를 기본으로 활용하지만, 그것만으

로는 충분한 검색효율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에 의장 화셋트 터엄(D-TERM)으로 칭하는 의장분류와는 별도의 관점으로부터 새로운 검색키를 개발하고 있다. 이것은 자료를 전자화일화하는 것에 의해 필요한 자료를 그때마다 자유롭게 호출할 수 있다는 전자의 장점을 활용하여 의장의 형상등의 특징을 다관점으로 기호화한 것이다. 의장분류는 의장심사자료를 의장의 용도를 중심으로 하여 A-N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 하위에 대분류, 소분류, 형태분류를 둔 것으로 약 5,000 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심사자료에는 1건 당 1 분류가 부여되어 자료의 기본적인 세분화를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의장분류는 기계검색의 기본적인 검색기호이다.

D-TERM은 검색효율의 향상을 위한 의장분류의 세분화이상의 세분화를 필요로 하는 분야, 혹은 분야를 초월한 횡단적 서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개발하는 기계검색 전용의 검색기호로 테마, 관점, 전개에 의하여 구성되며 검색의 대상인 물품에 D-TERM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

3) T(Trade mark) Term 검색시스템 (1993부터 가동)

(a) T-Term의 개요

T-Term 시스템은 상표심사의 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출원정보 및 각종심사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T-Term(호칭·도형Term, 유사군 코드 등)을 검색키로 하여 상표의 검색을 행하며, 각종 리스트류의 출력 및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 기능으로서는 데이터 작성·축적기능, 검색처리기능, 리스트 작성기능, 조회기능 등을 가지며, 기본 마스타 작성·축적·갱신시스템,

상품·역무 체크시스템, 호칭검색시스템, 각종 리스트작성 시스템, 온라인조회시스템 등의 서비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종래의 상표심사는 1977년 개발된 상표기능검색 시스템(호칭에 의한 검색)으로부터 출력된 검색결과 리스트를 심사자료로 이용하여 왔다.

그러나, 국제분류의 채용에 의하여 종래의 일본분류의 하나의 류에 포함되는 상품이 복수의 국제분류로 분산됨에 따라 국제분류에 대응하는 선원상표의 서치에 류를 초월한 유사군 상품단위까지의 서치량의 확대, 또 서비스 마크의 등록제도 도입 및 심사자료의 누적에 따른 서치부담의 증대 등의 이유로부터 상기 검색시스템으로는 충분한 검색효율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래서, 1990년부터 T-Term 검색시스템의 연구개발을 행하여 1993년에 “상표기본 마스타”와 “T-TERM검색프로그램”이 완성되어 현재 T-Term 서치시스템에 의한 호칭검색결과 리스트를 비롯한 각종 리스트류의 출력이 가능하게 되었다.

(b) T-Term 검색 시스템의 개발내용

지금까지 개발된 T-Term 검색시스템은 그 내용을 기능면으로 분류하면 “데이터작성·축적” “마스타 관리” “리스트 작성” “검색·조회” 및 “관리”로 나눌 수 있다. 이하 각각의 시스템 내용을 설명한다.

(가) 데이터 작성·축적

○ 원서전본 이미지축적 시스템

출원된 상표전본을 광디스크로 축적한다. 본원 도형카드, 기등록된 도형을 도형 터업순으로 작성에 이용한다.

○ 상품·역무 체크 시스템

출원 마스터에 축적된 “지정상품·역무”

와 “상품·역무체크 테이블”을 대조하여 유사군 코드를 부여하고 잘 어울리는 것 (Match and match sheet)을 출력한다.

(나) 마스타 관리

○ 상표기본 마스타 작성·갱신 시스템

각종 리스트류의 출력의 데이터 베이스인 국제분류에 대응한 마스타·상표, 호칭, 유사군 등의 데이터의 다른 도형 터엄의 축적도 가능.

(다) 리스트 작성

○ 각종 리스트 작성 시스템

선원 리스트와 枝카드를 합세한 문자 枝리스트, 도형의 이미지를 출력한 枝リスト, 거절리스트 등을 작성하여 심사보조자료로 한다.

○ 본원용도형 심사카드 작성시스템

도형 심사시에 포대에 본원도형카드를 병행하여 심사하기 위한 도형 이미지를 출력한 도형심사용 카드를 도형 터엄의 대부분류마다 출력한다.

(라) 검색·조회

○ 호칭검색 시스템(상표기본 마스타 대응)

본원의 호칭을 근간으로 검색기준에 합치한 호칭을 가진 상표(인용 데이터)를 기본 마스터로 부터 추출하여 호칭검색 결과화일을 작성한다.

○ 서비스 마크 세브데이터 검색 시스템

NTT 타운페이지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질문상표와 동일의 데이터를 검색하여 “타인의 명칭”의 검색결과 리스트, “어느 곳에나 있는 店名”의 검색결과 리스트를 출력하여 서비스 마크 등록출원의 심사자료로 이용한다.

○ 온라인 조회 시스템



상표기본 마스타, 서비스 마크 등에 축적된 데이터(상표, 호칭, 이미지, 유사군 코드 등)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마) 관리

○ 도형데이터 관리 시스템

도형상표의 소트 키가 되는 도형 터엄을 관리(터엄의 추가, 변경, 삭제)함과 동시에 부여된 도형터엄에 대하여 통계리스트를 출력한다.

○ 대기 출원관리 시스템

상표의 선출원처리 대기, 심결대기등의 대기 출원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에 의하여 출원등의 처리상황에 응하여 처분 가능한 “대기출원”을 기계적으로 관리한다. 즉, 94년도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상표 기안등의 시스템은 T-TERM 검색시스템의 개발자원을 활용하여 장래 예상된 전자출원·제도개정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확장성, 유연성이 뛰어나며 저렴한 계산기자원이 이용되는 “지역분산형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4) J(Judie)TERM검색 시스템

(1986년부터 가동)

J-TERM 검색 시스템은 PAPER-LESS계획의 일환으로 개발된 심판결의 검색 시스템이다. 개발을 1984년에 착수하여 1986년부터 청내 서비스를 행하고 있다.

심판에 있어서는,

(가) 심판에 있어서 심리로 진행되는 기술적 또는 법률적 판단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나) 소송에 있어서 답변이유, 상고이유의 구축을 위하여,

(다) 심결, 준비절차 서면의 文例 찾기 위하여,

(라) 심판청구서등에 인용된 판결례를 구하기 위하여,

심판례, 판결례의 조사를 한다. 종래 이러한 조사는 심판결집을 이용하여 행하였지만 축적되는 심판결례의 증대에 의한 검색이 곤란하게 되어 J-TERM 검색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J-TERM 검색 시스템의 화일구성으로서는 코드데이터를 격납하는 코드데이터화일과 광디스크를 이용하여 이미지데이터를 격납하는 이미지데이터 화일이 있다. 코드데이터 화일은 이미지화일은 J-TERM화일과 키워드화일 및 서지적사항과 판시사항화일 등으로 구성되며, 이미지데이터화일은 판결 본문을 격납한 판결화일로 구성된다.

사용자는 단말기로부터 J-TERM 키워드를 조합한 검색식을 입력하는 것에 의하여 원하는 문헌의 사건번호(또는 심판번호) 서지적사항, 판결본문을 찾을 수가 있다. 또 심결본문은 종합자료데이터베이스에 연계되어 표시된다. <계속> 별록9604

